

부모의 성취압력과 청소년의 자기불일치가 학업적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s of Parents'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and Adolescents' Self-Discrepancies on Academic Achievement Motivation

인하대학교 소비자 아동학전공
석사 정소희
부교수 양성은

Consumer & Child Studies Major, Inha University

Master : Sohee Jung

Associate Professor : Sungeun Ya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influences of achievement pressure from parents and the discrepancy of real self and ideal self on the academic achievement motivation among adolescent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1140 students including 559 middle school students in second grade and 581 high school students in second grade in Seoul and Gyeonggi-do.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male students were more effected by the achievement pressure from parents than female students and the ideal discrepancy of self-discrepancies had a greate effects on academic achievement motivation regardless of gender. In conclusion, higher achievement pressure and lower ideal discrepancy represented higher academic achievement motivation.

주제어(Key Words) : 성취압력(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자기불일치(self-discrepancy),
학업적 성취동기(academic achievement motivation)

Corresponding Author : Sungeun Yang, Consumer & Child Studies Major, Inha University, # 253 Yonghyun-dong, Nam-gu, Incheon, 402-751,
Korea Tel: + 82-32-860-8117 Fax: +82-32-865-5228 E-mail: syang@inha.ac.kr

* 본 논문은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I. 서론

성취는 사회화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들 중 하나로 아동들로 하여금 자신이 설정한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게 만들고,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였을 때 자신의 성취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도록 만든다. 이렇듯 성취동기는 도전적인 과제에서 성공하고, 높은 수행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꺼이 노력하는 것이다. 또한 특정한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겠다는 내적인 의욕이며, 도전적이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기대를 말한다.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감과 적절한 모험심을 가지고 과제지향적이며 새로운 일을 좋아하고 자신에 대한 신뢰와 책임감이 높은 동시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높은 성취만족을 기대하는 행동을 보인다. 반면 성취동기가 낮은 사람들은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일을 선호하고 성공에 대한 희망보다 실패에 대한 불안과 회피가 더 크다. 이처럼 성취동기는 개인의 성공적인 성취와 바람직한 삶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특성이다(이은진, 2007).

성취동기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촉진되거나 억제되어 많은 개인차가 나타나며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반영된다. 특히 한국은 세계적으로 성취동기가 높은 민족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한국학생과 성인의 성취의식에 대한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학업성취에 가장 자부심을 가지며 성취를 위해 부모로부터의 칭찬이나 격려와 같은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2). 학업에서의 성취는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성취동기가 말로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구혜영, 2006).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청소년의 성취동기는 성과 학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성취동기를 나타내고 있으나(이경님, 2006; 정계숙, 199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취동기가 낮았으며(민숙정, 1990), 고등학교 2학년 남녀학생의 성취동기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김경옥, 1992). 이처럼 발달 시기에 따라 남녀의 성취동기의 우열이 달라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성역할 고정관념이 점차 사라지고 있어 남녀의 성취동기 양상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학년에 따른 차이를 본 선행연구에서는 학업적 성취동기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거나(박석철, 2007),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내재적 동기를 더 추구하거나(김희수, 2003),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숙달목표와 학업효능감이 더 높고, 성취가치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양연숙, 2006).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업적 성취동기에 있어서 청소년의 성과 학년에 따라

서로 상반된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성과 학년에 따라 청소년의 성취동기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그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청소년의 성취동기는 가정을 비롯한 주변 환경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지만 그 중에서도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처음으로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영향력과 통제력을 미치는 존재이다. 특히 부모의 성취압력은 자녀의 학업과 사회에서의 성취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성취에 집착하게 될 경우 성취압력은 자녀에게 극단적인 방향으로 표출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부모의 성취압력은 복합적인 양육태도를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녀의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에 있어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많다(이수진, 조상철, 허일범, 2008). 이는 개인의 독립성과 차별성을 존중하는 서양의 문화와는 달리 한국의 학생들은 부모가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관심의 표현이며 애정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정갑순, 2002).

국내의 연구에서 부모의 높은 성취압력이 아동과 청소년의 성취동기를 높이기도 하였고(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황혜연, 2006), 자녀의 학업동기를 낮추고 시험불안을 증가시켜 학업성취에 있어 낮은 자아개념을 형성하며(임중석, 2000), 학습된 무력감(손낙주, 1997), 학교부적응(정지선, 2007) 등의 다양한 부정적 발달 결과를 초래하는 변인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에서 부모의 성취압력에 따라 다양한 결과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자녀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학업적 성취동기가 촉진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 저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부모의 성취압력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성취압력이 성취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업적인 기대가 최고조에 있는 청소년기는 급격한 성장과 발달로 인한 신체적 성장과 정서적인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개체 발달 과정에서 자아 주체성을 확립하고 성숙한 사회인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통합하는 중요한 시기이다(김향림, 2001).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자기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이 주 발달과제인 청년기(12-18세)에 속하며 정체성을 찾기 위해 자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이므로 자기개념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자기불일치를 경험하게 된다(Erikson, 1963). 그러한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이나 중요한 타인(부모, 형제, 가까운 친구 등)이 바라는 이상적 자기와 실제적 자기의 모습, 또는 자신이 꼭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의무적 자기와 실제적

자기의 모습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자기불일치 이론이라고 정의되었고 이러한 자기불일치가 클수록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유발된다고 하였다(Higgins, 1987). 또한 다양한 자기표상을 하고 이를 통합해 가야 할 청소년기의 특징을 고려해 볼 때 자신이 지각하는 현재의 자아상과 미래에 자신이 되고 싶어하는 자아상 및 미래에 자신이 되어야만 하는 자아상과의 불일치가 클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러한 자기불일치는 학문적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에서 자기불일치는 주로 고등학생 및 대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우울 및 불안(서수균, 1996; 최정원, 1996), 시험불안(박현희, 2006) 등과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학업적 성취동기와 관련된 연구는 이상적 불일치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거나(박현주, 2003), 성취하락을 많이 느낄수록 성취관련 자기불일치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연구결과(신혜린, 2002)와 자아불일치가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높은 경향을 보인 연구결과(정혜중, 1986)로 소수이며, 연구결과는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의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업적 성취동기 및 청소년의 자기불일치와 학업적 성취동기 간의 영향을 다룬 연구들은 거의 소수이며 이루어진 연구결과들도 주로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서 일관되지 못하다. 또한 부모의 성취압력과 자기불일치가 학업적 성취동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에 따라서 청소년의 학년, 부모의 성취압력, 청소년의 자기불일치가 학업적 성취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양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의 필요성을 토대로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성과 학년에 따라 학업적 성취동기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성에 따라 청소년의 학년, 부모의 성취압력, 청소년의 자기불일치가 학업적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학업적 성취동기

성취동기는 이미 유아초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하는 특성으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어떤 청소년은 다른 청소년보다 더 과제지향적이며 성취지향적인 행동을 보여준다(Shaffer, 2000). 성취동기는 연구자들마다 매우 다른 방식으로 개념화

되었는데, 많은 연구들이 학교 학습과 연관된 동기현상으로 설명하려 하였고, 이를 통해 학업적 성취동기가 구체화되었다(Bandura, 1986; Weiner, 1985). 학업적 성취동기는 학습자의 학교상황에서의 학습을 성취하려는 의욕 혹은 동기를 학습동기 혹은 성취동기(권형자, 1993), 학교학습상황에서 발휘되는 성취동기를 학업성취동기(유영숙, 2001), 성취동기가 학교상황에서 학업성취를 위한 의욕, 또는 동기로 정의된다고 하면서 이를 학업동기(기철현, 2002)로 부르기도 하는 등 연구자들마다 부르는 용어는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학습상황에서의 성취동기를 학업적 성취동기(김도윤, 2009)라고 명명한 용어로 사용하였다.

성취목표이론가들은 목표지향성을 숙달목표와 수행목표로 구분하고, 학습자의 목표지향이 어떠한가에 따라 학습활동이 다름을 주장한다. 숙달목표를 추구하는 학습자는 학습을 자신의 능력 발달 및 자아실현의 기회로 보고, 학습의 내재적 가치에 의미를 부여한다. 반면, 수행목표를 추구하는 학습자는 학습을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여기고, 학습의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한다.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신념으로서, 개인의 행동범위 및 활동내용에 영향을 주고, 어떤 장애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정도에도 영향을 준다. 성취가치는 주어진 학습을 가치롭게 여기는 이유로서, 성취에 대한 가치가 없다면 성공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과제에 몰두하지 않는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성취동기의 하위요인으로 숙달목표, 수행목표, 학업효능감, 성취가치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학업적 성취동기는 청소년의 학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학년에 따른 학업적 성취동기를 규명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숙달목표와 학업효능감이 더 높았고, 성취가치에서는 고등학생과 중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양연숙, 2006). 학업적 성취동기는 학업동기를 연구한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하는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사회적 동기와 무동기는 올라가는 반면, 자율적 동기는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고(임은미, 1998),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내재적 동기를 더 추구한다고 보고하였다(김희수, 2003).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학업적 성취동기가 학년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비교적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학업적 성취동기는 청소년의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성취동기의 성차를 살펴본 초기의 연구에서는 실험조건에 따라 남녀가 서로 다른 영향을 받아 성취동기에 성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여준다.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학생은 성취동기가 강하게 유발될 수 있는 성취지향적인 실험조건에서 매우 높은 성취동기를 나타

냈으나 여학생은 경쟁이 강조되지 않는 편안한 실험조건에서 남학생보다 높은 성취동기를 나타내었다(Field, 1951). 또한 지도력과 지적 기준이 강조되는 실험조건에서 남학생의 성취동기는 높아졌지만 여학생은 그렇지 않았다(Stein & Bailey, 1973). 이처럼 경쟁적이고 능력이 중시되는 실험상황에서 대체로 남성의 성취동기는 높게 측정되고 여성의 성취동기는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취동기의 여러 하위요인 중 포부수준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나타난 연구(김보경, 2001)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성취동기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이경남, 2006; 정계숙, 1992).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취동기가 낮았으며(민숙정, 1990), 고등학교 2학년 남녀학생의 성취동기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김경옥, 1992). 이처럼 학령기에는 대체로 여아가 남아보다 성취동기가 우세한 경향을 나타내지만, 청소년기로 들어서면서는 이러한 양상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격적으로 성역할을 습득하는 시기에 있는 남녀 청소년들이 학업 및 사회적인 성취와 성공을 여성보다는 남성의 영역으로 분류하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습득하면서 남자는 높은 성취동기를 갖게 되는 반면, 여자는 성취행위가 자신의 성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동기가 유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점차 사라지고 있어 남녀의 성취동기 양상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취업모의 딸은 독립적이고 강한 자신감을 가지며(Steil, 1997), 성인이 되었을 때 더 자율적이고 높은 포부수준과 직업목표를 갖는 성취지향적인 여성으로 성장한다는 연구결과들은 이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Betz & Fitzgerald, 1987).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학업적 성취동기에 대한 성차에서 서로 다른 연구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했을 때 성취동기의 육성은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적응에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2.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업적 성취동기

성취압력은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뚜렷한 변화를 보이는 양육행동보다 비교적 사회문화적 맥락과 특히 한국 교육의 구조적 특성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자녀에 기대하는 주요한 성취압력은 학업에 관한 성취압력이다. 학업성취압력이란 학습자에게 학업성취를 목적으로 기대수준을 높게 책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활동을 기대하며, 능력을 평가하거나 정의적 보상을 가함으로써 학습자가 지각한 압력이다(홍은자, 2001). 또한 자녀수가 적은 가정의 아이들은 성취 지향적이고 자신의 특성에 맞게 진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나 아버지가 권위주의적이고

어머니가 극성인 가정의 아이들은 비현실적으로 높은 성취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 이렇듯 부모의 성취압력은 학업적인 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업적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부모의 성취압력을 높게 지각한 청소년은 높은 성취동기(김경옥, 1992; 박영신 외, 2004)와 숙달목표(황혜연, 2006)를 보이며, 성취에 대해서 강조하는 양육태도는 남녀청소년의 성취동기를 높이고(이경남, 2006), 아버지의 성취 지향적 양육태도 역시 대학생 딸의 높은 성취동기와 관련이 있었다(강혜선, 1988). 이는 청소년들이 부모의 성취압력을 온정과 관심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은 부모의 성취압력을 통해 성취에 대한 높은 기준을 내면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동기가 더욱 자극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청소년 자녀에게 성취압력을 가하지 않을 경우, 자녀의 학업적인 동기와 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성취압력은 과도할 경우 아동의 성취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머니의 성취동기가 매우 높은 집단의 아동이 네 집단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성취동기를 보고하였으며(McClelland, 1961), 심리적 압력이 높으면 학생의 부적응행동 유발의 원인이 되고(김중서, 1983), 부모의 성취압력은 불안 정도를 가중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김경옥, 1992).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과도한 성취압력을 나타내면 청소년의 성취동기는 저하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부모의 성취압력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아버지의 역할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성취압력을 고려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고, 주로 어머니에 대한 성취압력이나 부모의 성취압력을 같이 보고 있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업적 성취동기에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성취압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자기불일치와 학업적 성취동기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자기개념은 인지발달로 인해 자신의 외적 행동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에서 자신의 내면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추상적인 기술로 변화한다(Harter, 1990; Rosenberg, 1986).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자기를 추상적으로 기술하는 능력으로 인해 점점 사고가 구체적 행동과 유리되어서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청소년들이 가설적 자기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이런 왜곡경향성을 조장한다. 자기개념의 왜곡현상은 청소년기의 정상적인 경향성이고 극단적이 아닌 이상 이런 왜곡을 병리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Harter, 1990). 자기의 영역은 아동기부터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다양한 영역으로 분화되며(Harter, 1983; Rosenberg, 1986), 자기기술을 하는데 범주가 많아지고 특질명칭의 범위가 넓어지며, 자기평가를 하는 영역의 수가 많아진다. 즉, 청소년기는 자기개념을 왜곡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자기개념의 혼란이 올 수 있는 시기로 자기불일치를 경험하게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이나 중요한 타인(부모, 형제, 가까운 친구 등)이 바라는 이상적 자기와 실제적 자기의 모습, 또는 자신이 꼭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의무적 자기와 실제적 자기의 모습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를 자기불일치 이론(self-discrepancy theory)으로 정의하였다(Higgins, 1987).

자기불일치 이론에는 두 가지 인지적인 차원들, 즉 자기의 영역과 자기에 관한 관점이 있다. 자기의 영역에는 실제적 자기, 이상적 자기, 의무적 자기가 있고, 자기에 관한 관점으로는 자기가 자신을 보는 관점과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의 관점이 있다. 그리하여 자기의 영역들과 자기에 대한 관점을 조합하면 실제/자기, 실제/타인, 이상/자기, 이상/타인, 의무/자기, 의무/타인 이렇게 6가지 자기 표시가 가능하다. 특히 실제/자기와 실제/타인은 전형적으로 개인의 자기개념을 이루며 나머지 4가지 자기 표시는 지금의 자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나아가 할 방향에 대해 지시를 해 줄 수 있는 자기 지시적인 기준 또는 자기를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사람들은 자기개념과 자기 지시적인 기준의 일치를 이루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는데, 자기개념과 자기 지시적인 기준이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자기개념에 혼란을 가져와 청소년기에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속성인 자기왜곡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자기불일치의 결과를 가져온다.

자기불일치 이론(Higgins, 1987)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연구를 살펴보면 성취관련 자기불일치의 척도를 개발하여 성취관련 자기불일치가 수행불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조용래, 김선태, 표경식, 1996). 그리고 성취관련 자기불일치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시험불안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신혜린, 2002), 자기불일치와 자기효능감이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 연구결과도 있다(서수균, 1996; 임일모, 조용래, 김학렬, 1995). 그리고 자기불일치와 학업성취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자기불일치가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학업성적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정해중, 1986). 또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불일치와 우울, 불안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박현주, 2003),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자기불일치 유형과 정서적 특징을 비교한 연구(신민희, 강문희, 2005) 등에서 학업과 관련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렇듯 자기불일치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성취동기와 관련된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에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논의는 하기에는

그 수가 소수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불일치가 학업적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부모의 양육행동에서 성취압력과 청소년기의 자기불일치는 학업적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았다. 부모의 성취압력과 자기불일치가 학업적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드물지만, 다양한 변인들이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부모의 성취압력과 자기불일치가 성취동기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표 1〉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 = 1140)

변인	구분	N (%)	
청소년	성	남자청소년	553(48.5%)
		여자청소년	587(51.5%)
	학년	중학교 2학년	559(49.0%)
		고등학교 2학년	581(51.0%)
출생순위	외동	66(5.8%)	
	첫째	496(43.5%)	
	둘째	499(43.8%)	
	셋째	64(5.6%)	
	넷째 이상	15(1.4%)	
부모연령	40세 미만	14(1.2%)	
	40세~45세 미만	262(23.0%)	
	45세~50세 미만	512(44.9%)	
	50세~55세 미만	308(27.0%)	
	55세 이상	44(3.8%)	
아버지	40세 미만	72(6.3%)	
	40세~45세 미만	520(45.6%)	
	45세~50세 미만	407(35.7%)	
	50세~55세 미만	126(11.1%)	
	55세 이상	15(1.3%)	
부모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49(4.3%)	
	고등학교 졸업	462(40.5%)	
	대학교 졸업	528(46.3%)	
	대학원 졸업	101(8.9%)	
어머니	중학교 졸업 이하	57(5.0%)	
	고등학교 졸업	627(55.0%)	
	대학교 졸업	415(36.4%)	
	대학원 졸업	41(3.6%)	
아버지	무직, 가정주부	22(1.9%)	
	단순 노동직	31(2.7%)	
	서비스 및 판매직	376(33.0%)	
	사무직 및 행정직	619(54.3%)	
	전문직	51(4.5%)	
	고위관리 및 간부	29(2.5%)	
	기타	12(1.1%)	
어머니	무직, 가정주부	473(41.5%)	
	단순 노동직	40(3.5%)	
	서비스 및 판매직	310(27.2%)	
	사무직 및 행정직	246(21.6%)	
	전문직	63(5.5%)	
	고위관리 및 간부	3(0.3%)	
	기타	5(0.4%)	

성취압력과 자기불일치가 학업적 성취동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2학년 학생 총 1140명을 최종 자료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서울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24학급, 경기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12학급, 총 36개 학급에 총 1260부를 배부하였고, 불응하거나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연구도구

1) 성취압력 척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성취압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김기정(1984)의 부모 양육태도 검사와 김경옥(1992)의 성취압력 검사지를 재구성한 강영철(2003)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나누어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부모님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은 내 공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부모님은 친구들과 노는 시간을 제한하시는 편이다.’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5점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대체로 그렇지 않다), 3점(그저 그렇다), 4점(대체로 그렇다), 5점(항상 그렇다)의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성취압력을 높게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Cronbach' α 를 살펴본 결과 부와 모의 성취압력은 모두 .91로 나타났고, 전체 성취압력은 .95로 나타났다.

2) 자기불일치척도

청소년이 지각한 자기불일치를 측정하기 위해 Higgins, Bond, Klein과 Strauman(1986)의 자기 질문지의 제한점을 보완하고자 서수균(1996)이 새롭게 구성한 자기질문지를 토대로 박현주(2003)가 수정한 자기질문지를 사용하여 자기불일치를 측정하였다. 서수균(1996)의 자기질문지는 Osgood, Suci와 Tannenbaum(1957)등이 의미측정을 위해 표집한 50개의 반의어 형용사 쌍들 중에서 자기 진술에 적절하고 요인 부하량이 높은 22개의 쌍의 형용사들로 구성된 자료를 대 학생에 적합하도록 9점 척도로 제작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박현주(2003)가 7점 척도 상으로 평정하여 고등학생 대

상자에게 적용하였다. 반응 편증을 막기 위해 22문항 중 13 문항은 긍정적인 형용사를 먼저 제시했고, 9문항은 부정적인 형용사를 먼저 제시했다. 형용사는 평가(evaluation), 역능(potency), 활동성(activity)의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기불일치 척도는 연구대상인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먼저 자기의 영역에서 자기에게 중요한 타인이 보는 관점을 제외한 자신이 보는 관점만 적용하여 구성되었다. 따라서 설문지는 자신의 관점에서 보는 3가지 자기표상(실제/자신, 이상/자신, 의무/자신)에 대한 것으로 국한되었다. 자기불일치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22개의 쌍들은 <표 2>와 같다. 그리고 자기불일치 평가는 비교하고 있는 자기 상태들 간에 대응되는 각 문항별 차이의 절대값을 22문항 모두 합해서 계산했다. 각 문항은 7점 척도 상에서 평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일치가 심한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Cronbach' α 를 살펴본 결과 실제적 자기, 이상적 자기, 의무적 자기는 각각 .86, .93, .93으로 나타났다.

<표 2> 자기불일치 척도의 문항구성 내용

범주	내용
평가 차원 (Evaluative factor)	좋은/나쁜, 아름다운/추한, 딱딱한/부드러운, 더러운/깨끗한, 짐작한/불안한, 가치있는/무가치한, 유쾌한/불쾌한, 행복한/슬픈, 온순한/사나운, 긴장된/편안한, 용감한/ 겁이 많은, 분명한/불분명한, 정직한/부정직한, 불공정한/공정한, 건강한 /병약한, 사교적인/비사교적인
역능 차원 (Potency factor)	큰/작은, 우둔한/총명한, 소극적인/적극적인, 거친/섬세한
활동 차원 (Activity factor)	약한/강한, 느린/빠른

3) 학업적 성취동기 척도

청소년이 지각한 학업적 성취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문은식(2002)이 번안 및 수정하여 개발한 측정도구의 일부분항을 수정하여 사용한 김도운(2009)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학업적 성취동기에 관한 척도는 총 33문항으로, 숙달목표(8문항), 수행목표(8문항), 성취가치(9문항), 학업효능감(8문항)의 네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대체로 그렇지 않다), 3점(대체로 그렇다), 4점(매우 그렇다)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의 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Cronbach' α 를 살펴본 결과 숙달목표, 수행목표, 성취가치, 학업효능감은 각각 .70, .80, .84, .85로 나타났다.

〈표 3〉 성과 학년에 따른 학업적 성취동기의 문항평균 및 표준편차

(N = 1140)

측정변인		성		t	학년		t
		남자	여자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 (N = 553) M(SD)	청소년 (N = 587) M(SD)		2학년 (N = 559) M(SD)	2학년 (N = 581) M(SD)	
학업적 성취동기	숙달목표	2.47(.47)	2.43(.54)	1.18	2.46(.44)	2.45(.45)	.18
	수행목표	2.42(.41)	2.42(.52)	.10	2.38(.52)	2.46(.54)	-2.58*
	성취가치	2.67(.54)	2.66(.51)	.34	2.74(.50)	2.59(.54)	4.90***
	학업효능감	2.69(.53)	2.66(.50)	.95	2.69(.50)	2.66(.54)	.80

* $p < .05$ *** $p < .001$

3. 자료수집

2010년 2월 03일부터 2월 20일까지 서울 및 경기도 위치한 6개의 중·고등학교에서 실시 및 수집되었다. 설문지를 배부하기 전 전화로 각 학교 선생님들께 자료조사 협조를 구하였다. 설문지 배부는 본 연구자가 사전에 선생님들에게 실시 방법을 간략하게 구두 전달 후, 선생님의 지도하에 학생이 교실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제출된 설문지는 본 연구자가 선생님으로부터 일괄적으로 회수하였다. 조사시간은 평균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설문지는 6개 중·고등학교 36학급에 총 1260부를 배부하였고 모두 회수하였으나, 무응답이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20부를 제외하고 총 1140부가 실제 연구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for window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연구 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성과 학년에 따른 학업적 성취동기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 부모의 성취압력과 청소년의 자기불일치가 학업적 성취동기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성에 따라 청소년의 학년, 부모의 성취압력, 청소년의 자기불일치가 학업적 성취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성과 학년에 따른 학업적 성취동기

성과 학년에 따른 학업적 성취동기를 4가지 하위요인 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숙달목표’는 성($t = 1.18$)과 학년($t = .18$)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수행목표’는 성($t = .10$)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학년($t = -2.58, p < .05$)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성취가치’에서 성($t = .34$)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학년($t = 4.90, p < .001$)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학업효능감’에서는 성($t = .95$)과 학년($t = .80$)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행목표’와 ‘성취가치’가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수행목표’는 고등학교 2학년이 중학교 2학년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성취가치’는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 2학년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즉 고등학교 2학년은 중학교 2학년보다 학습을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여기고 학습의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교 2학년은 고등학교 2학년보다 학교학습을 더 가치있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성에 따라 학년, 부모의 성취압력 및 청소년의 자기불일치가 학업적 성취동기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성에 따라 학년, 부모의 성취압력 및 청소년의 자기불일치가 학업적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청소년의 학년은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잔차항 간의 상관과 다중공선성 존재여부를 검토한 결과, Durbin-Watson 계수가 1.864 ~ 2.125으로 2에 가까워 잔차항간의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선성 여부를 알기 위해서 공차한계(Tolerance)와 VIF 계수를 산출한 결과, 공차한계가 작거나(< 0.1) VIF계수가 크면(> 10)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나, 모든 모형에서 공차한계는 0.1 이상이었고, VIF 계수가 모두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향력을 살펴보기에 앞서 측정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청소년의 성에 따른 부모의 성취압력, 청소년의 자기불일치, 학업적 성취동기간의 관계

성에 따라 부모의 성취압력, 자기불일치, 학업적 성취동기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산출한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남자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의 성취압력과 학업적 성취동기의 하위요인 중 '수행목표($r = .19, p < .01$)', '성취가치($r = .21, p < .01$)', '학업효능감($r = .09, p < .05$)'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여자청소년은 학업적 성취동기 하위요인 중 '수행목표'($r = .20, p < .01$)에서만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어머니의 성취압력과 학업적 성취동기의 하위요인 중에서 남자청소년은 '숙달목표($r = .09, p < .05$)', '수행목표($r = .23, p < .01$)', '성취가치($r = .21, p < .01$)', '학업효능감($r = .14, p < .01$)'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여자청소년은 '수행목표($r = .16, p < .01$)'에서만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상적 불일치와 학업적 성취동기의 하위요인 중에서 남자청소년은 '숙달목표($r = -.28, p < .01$)', '수행목표($r = -.14, p < .01$)', '성취가치($r = -.22, p < .01$)', '학업효능감($r = -.21, p < .01$)'에서 높은 수준의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여자청소년은 '숙달목표($r = -.26, p < .01$)', '성취가치($r = -.20, p < .01$)', '학업효능감($r = -.26, p < .01$)'에서 높은 수준의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의무적 불일치와 학업적 성취동기의 하위요인 중 남자청소년은 '숙달목표($r = .26, p < .01$)', '성취가치($r = -.15, p < .01$)', '학업효능감($r = -.20, p < .01$)'에서 높은 수준의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여자청소년도 남자청소년과 동일하게 '숙달목표($r = -.21, p < .01$)', '성취가치($r = -.17, p < .01$)', '학업효능감($r = .23, p < .01$)'에서 높은 수준의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성에 따라 부모의 성취압력, 자기불일치 및 학업적 성취동기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모두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상관관계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남녀청소년 모두 자기불일치와 학업적 성취동기간의 상관관계는 대부분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업적 성취동기간의 상관관계에서 남자청소년은 대부분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지만 여자청소년은 학업적 성취동기의 하위요인 중 '수행목표'에서만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그 외의 하위요인에서는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1) 성에 따라 학년, 부모의 성취압력, 청소년의 자기불일치가 숙달목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성에 따라 학년, 부모의 성취압력, 청소년의 자기불일치가 숙달목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남자청소년의 숙달목표를 설명해주는 변인은, '이상적 불일치', '어머니의 성취압력', '의무적 불일치'로 나타났다. 모든 회귀계수들은 유의확률 .001보다 작으므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하며, 독립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이상적 불일치($\beta = -.199$)'가 7.6%로 가장 크고 다음은 '어머니의 성취압력($\beta = .137$)', '의무적 불일치($\beta = -.1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회귀모형의 F 통계량은 21.047 ($p < .001$)로서 매우 유의하고, R^2 에 의한 설명력은 10.3%로 나타났다.

여자청소년의 숙달목표를 설명해주는 변인은 '이상적 불일치'로 나타났고 그 외 변인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제거되었다. 모든 회귀계수들은 유의확률 .001보다 작으므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하며, 독립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이상적 불일치($\beta = -.237$)'로 가장 크다. 추정된 회귀모

<표 4> 청소년의 성에 따른 부모의 성취압력, 자기불일치, 학업적 성취동기간의 상관계수

(N = 1140)

변인		1	2	3	4	5	6	7	8
남자 청소년	성취 압력	1. 부 성취압력	1						
		2. 모 성취압력	.81**	1					
	자기 불일치	3. 이상적 불일치	.08	.07	1				
		4. 의무적 불일치	.05	.06	.68**	1			
	학업적 성취 동기	5. 숙달목표	.07	.09*	-.28**	-.26**	1		
		6. 수행목표	.19**	.23**	-.14**	-.07	.28**	1	
		7. 성취가치	.21**	.21**	-.22**	-.15**	.60**	.39**	1
		8. 학업효능감	.09*	.14**	-.21**	-.20**	.56**	.44**	.41**
여자 청소년	성취 압력	1. 부 성취압력	1						
		2. 모 성취압력	.80**	1					
	자기 불일치	3. 이상적 불일치	.08*	.10*	1				
		4. 의무적 불일치	.14**	.13**	.70**	1			
	학업적 성취 동기	5. 숙달목표	.01	-.04	-.26**	-.21**	1		
		6. 수행목표	.20**	.16**	-.05	.01	.30**	1	
		7. 성취가치	.07	.02	-.20**	-.17**	.58**	.41**	1
		8. 학업효능감	.02	.06	-.26**	-.23**	.64**	.40**	.51**

* $p < .05$ ** $p < .01$

〈표 5〉 성에 따라 학년, 부모의 성취압력, 청소년의 자기불일치가 숙달목표에 미치는 영향

(N = 1140)

	단계	측정변인	B	β	R ²	F
남자 청소년	1단계	(상수)	2.729		.076	45.386***
		이상적 불일치	-.009	-.276***		
	2단계	(상수)	2.440		.094	28.643***
		이상적 불일치	-.009	-.286***		
		모 성취압력	.088	.135**		
		(상수)	2.478			
3단계	이상적 불일치	-.006	-.199***	.103	21.047***	
	모 성취압력	.089	.137**			
	의무적 불일치	-.004	-.128*			
여자 청소년	1단계	(상수)	2.694		.056	34.787***
		이상적 불일치	-.008	-.237***		

p < .01 *p < .001

〈표 6〉 성에 따라 학년, 부모의 성취압력, 청소년의 자기불일치가 수행목표에 미치는 영향

(N = 1140)

	단계	측정변인	B	β	R ²	F
남자 청소년	1단계	(상수)	1.889		.054	31.421***
		모 성취압력	.157	.232***		
	2단계	(상수)	2.042		.077	22.966***
		모 성취압력	.164	.243***		
여자 청소년	1단계	(상수)	2.072		.039	23.873***
		부 성취압력	.121	.198***		
	2단계	(상수)	2.004		.050	15.321***
		부 성취압력	.124	.203***		
		학년	.108	.103*		

*p < .05 ***p < .001

형의 F통계량은 34.783(p < .001)로 매우 유의하고 R²에 의한 설명력은 5.6%로 나타났다.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모두 숙달목표에 '이상적 불일치'가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의무적 불일치', '어머니의 성취압력'은 남자청소년들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여자청소년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2) 성에 따라 학년, 부모의 성취압력, 청소년의 자기불일치가 수행목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성에 따라 학년, 부모의 성취압력, 청소년의 자기불일치가 수행목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남자청소년의 수행목표를 설명해주는 변인은, '어머니의 성취압력', '이상적 불일치'로 나타났다. 모든 회귀계수들은 유의확률 .001보다 작으므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하며, 독립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머니의 성취압력(β = .243)'이 5.4%로 가장 크고 다음은 '이상적 불일치(β = -.152)'로 나타났다. 추정된 회귀모형의 F통계량은

22.966(p < .001)로서 매우 유의하고 R²에 의한 영향력은 7.7%로 나타났다.

여자청소년의 수행목표를 설명해주는 변인은 '아버지의 성취압력', '학년'으로 나타났다. 모든 회귀계수들은 유의확률 .001보다 작으므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하며, 독립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아버지의 성취압력(β = .203)'이 3.9%로 가장 크고, 다음이 '학년(β = .103)'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회귀모형의 F통계량은 15.321(p < .001)로 매우 유의하고, R²에 의한 설명력은 5.0%로 나타났다.

3) 성에 따라 학년, 부모의 성취압력, 청소년의 자기불일치가 성취가치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성에 따라 학년, 부모의 성취압력, 청소년의 자기불일치가 성취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남자청소년의 성취가치를 설명해주는 변인은, '이상적 불일치', '아버지의 성취압력', '학년'으로 나타났다. 모든 회귀계수들은 유의확률 .001보다 작으므로 유의수준 0.1%에

〈표 7〉 성에 따라 학년, 부모의 성취압력, 청소년의 자기불일치가 성취가치에 미치는 영향

(N = 1140)

	단계	측정변인	B	β	R^2	F
남자 청소년	1단계	(상수)	2.993		.049	28.247***
		이상적 불일치	-.007	-.221***		
	2단계	(상수)	2.460		.099	30.360***
		이상적 불일치	-.008	-.239***		
		부 성취압력	.153	.226***		
	3단계	(상수)	2.580		.118	24.742***
이상적 불일치		-.008	-.250***			
부 성취압력 학년		.142 -.155	.209*** -.142***			
여자 청소년	1단계	(상수)	2.926		.038	23.360***
		이상적 불일치	-.007	-.196***		
	2단계	(상수)	2.984		.054	16.705***
		이상적 불일치	-.007	-.186***		
		학년	-.130	-.126**		
	3단계	(상수)	2.845		.061	12.649***
이상적 불일치		-.007	-.193***			
학년 부 성취압력		-.125 .051	-.121** .084*			

* $p < .05$ ** $p < .01$ *** $p < .001$

〈표 8〉 성에 따라 학년, 부모의 성취압력, 청소년의 자기불일치가 학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N = 1140)

	단계	측정변인	B	β	R^2	F
남자 청소년	1단계	(상수)	2.930		.043	24.955***
		이상적 불일치	-.007	-.028***		
	2단계	(상수)	2.582		.069	20.334***
		이상적 불일치	-.007	-.220***		
		모 성취압력	.106	.160***		
	3단계	(상수)	2.618		.076	15.087***
이상적 불일치		-.005	-.141*			
모 성취압력 의무적 불일치		.107 -.004	.162** -.116*			
여자 청소년	1단계	(상수)	3.006		.068	42.580***
		이상적 불일치	-.010	-.260***		
	2단계	(상수)	2.864		.075	23.699***
이상적 불일치 모 성취압력	-.010 .049	-.269*** .085*				

* $p < .05$ ** $p < .01$ *** $p < .001$

서 유의하다. 독립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이상적 불일치($\beta = -.250$)' 이 4.9%로 가장 크고, 다음은 '아버지의 성취압력($\beta = .209$)', '학년($\beta = -.142$)' 순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회귀모형의 F통계량은 24.742($p < .001$)로서 매우 유의하고 R^2 에 의한 영향력은 11.8%로 나타났다.

여자청소년의 성취가치를 설명해주는 변인은 '이상적 불일치', '학년', '아버지의 성취압력'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회귀계수들은 유의확률 .001보다 작으므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하다. 독립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이상적 불일치

($\beta = -.193$)' 이 3.8%로 가장 크고, 다음이 '학년($\beta = -.121$)', '아버지의 성취압력($\beta = .084$)' 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회귀모형의 F통계량은 12.649($p < .001$)로 매우 유의하고 R^2 에 의한 설명력은 6.1%로 나타났다.

4) 성에 따라 학년, 부모의 성취압력, 청소년의 자기불일치가 학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성에 따라 학년, 부모의 성취압력, 청소년의 자기불일치가 학업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남자청소년의 학업효능감을 설명해주는 변인은 '이상적 불일치', '어머니의 성취압력', '의무적 불일치'로 나타났다. 모든 회귀계수들은 유의확률 .001보다 작으므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하다. 독립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이상적 불일치($\beta = -.141$)'가 4.3%로 가장 크고, 다음은 '어머니의 성취압력($\beta = .162$)', '의무적 불일치($\beta = -.116$)' 순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회귀모형의 F 통계량은 15.087($p < .001$)로서 유의하고 R^2 에 의한 영향력은 7.6%로 나타났다.

여자청소년의 학업효능감을 설명해주는 변인은 '이상적 불일치', '어머니의 성취압력'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회귀계수들은 유의확률 .001보다 작으므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하다. 독립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이상적 불일치($\beta = -.269$)'가 6.8%로 가장 크고, 다음은 '어머니의 성취압력($\beta = .085$)'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회귀모형의 F 통계량은 23.699($p < .001$)로 매우 유의하고 R^2 에 의한 설명력은 7.5%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에 따라서 학년, 부모의 성취압력 및 청소년의 자기불일치가 학업적 성취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서울 및 경기도에 위치한 6개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1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논의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 학년에 따라 학업적 성취동기를 살펴본 결과, 성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학년에 따라서 수행목표와 성취가치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수행목표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이 중학교 2학년보다 학습을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여기고 학습의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에 따라 수행목표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연구결과(김도윤, 2009)와 일치한다. 즉, 학년이 올라가면서 대학입시 제도와 높은 교육적 성취를 추구하는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학업의 내재적인 가치보다 타인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여기고 결과를 중시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두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취가치는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 2학년보다 학교학습을 더 가치있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양연숙, 2006)와는 일치하지 않으나, 초·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성취동기를 비교한 연구에서 고등학생들의 성취동기가 낮게 나타난 연구(소연희, 2008),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의 성취가치에 차이

가 있었다는 연구(김도윤, 2009)와는 일치한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과제의 난이도, 범위, 깊이 등이 중학교에 비해 높은 점, 그리고 학습태도, 학교 및 가정의 심리적 환경 등이 학업동기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쳐 학습 자체에 관심을 떨어지게 만들면서 학습에 가치를 덜 두게 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둘째, 성에 따라 학년, 부모의 성취압력 및 자기불일치가 학업적 성취동기 각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부모의 성취압력, 자기불일치 및 학업적 성취동기의 하위요인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버지의 성취압력과 어머니의 성취압력은 학업적 성취동기 간에 정적인 상관관, 이상적 불일치와 의무적 불일치는 학업적 성취동기 간에 부적 상관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에 따라서 학년, 부모의 성취압력과 청소년의 자기불일치가 학업적 성취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남자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성취압력과 자기불일치가 학업적 성취동기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성취압력과 자기불일치가 학업적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 자기불일치의 영향이 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업적 성취동기의 하위요인 중 수행목표와 성취가치는 학년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업적 성취동기의 하위요인 대부분이 이상적 불일치가 가장 큰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는 청소년들은 이상적 불일치를 경험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연구결과(임진, 김은정, 2008)와 이상적 불일치가 자기효능감에도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박현주, 2003)와 맥락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성적하락을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경험할수록 성취관련 자기불일치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연구결과(신혜린, 2002)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상적 자기는 그 자신의 소망, 바람이 보다 증점적으로 반영되어 형성되는 내재적 동기에 의해 갖게 되는 자기 표상이지만, 의무적 자기는 자신이 원하지 않더라도 부모나 선생님과 같은 중요한 타인의 기대나 강요에 더 큰 영향을 받아 형성될 수 있는 외재적 동기에 의해서 갖게 되는 자기표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은 이상적 자기표상에 더 큰 통제력을 갖고자 하며, 이상적 불일치는 의무적 불일치보다 그 개인에게 더 큰 실패감이나 낙담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자기 표상을 하고, 이를 통합해 가야 할 청소년기의 특징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 자신이 지각하는 현재의 자아상과 미래에 자신이 되고 싶어 하는 자아상과의 불일치가 크면 클수록 학업적 성취동기에 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부모의 성취압력은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기불일치와

다르게 학업적 성취동기의 하위요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각 하위요인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성취압력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자청소년의 경우 숙달목표, 수행목표, 학업효능감에서는 어머니의 성취압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성취가치에서는 아버지의 성취압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수행목표와 성취가치에서는 아버지의 성취압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학업효능감에서는 어머니의 성취압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요약하면 남자청소년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취압력이 학업적 성취동기의 각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청소년은 학업적 성취동기의 하위요인 중 수행목표에서 아버지의 성취압력을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그 외 하위변인에서는 낮은 수준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학업적 성취동기에 부모의 성취압력이 더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어머니가 보이는 성에 따른 태도에서 딸보다 아들에게 더 많은 학업 기대를 하고 있다는 연구결과(Baker & Entwisle, 1987), 부모의 성취압력을 높게 지각할수록 남자청소년의 숙달목표가 높아졌다고 나타난 연구결과(황혜연, 2006), 부모의 성취 지향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학령 후기 남아의 성취동기가 높아졌다고 나타난 연구결과(이경남, 2006)와 일치한다. 그러나 어머니의 성취압력이 남자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구현경, 2008)와는 일치하지 않으며, 학령후기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권위·통제적 양육행동이 여아의 성취동기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남아의 성취동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연구결과(박현정, 이경남, 2005)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본 연구결과에 비추어 해석해볼 때, 아들은 딸보다 부모의 양육행동을 더 성취압력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남자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요구가 여자청소년보다 크고, 여자청소년은 남자청소년보다 순종적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의 간섭을 남자청소년보다 적게 받은 결과라고 사료된다.

학업적 성취동기의 하위요인 중 수행목표에서는 남녀청소년이 각각 이성의 부모의 성취압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수행목표와 성취가치에서는 학년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수행목표는 외재적 동기로서 목적을 학습의 결과로 두고 있는데 이것이 이성의 부모의 성취압력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남녀청소년 스스로 수행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각각 성취압력에 의해 좌우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내재적 동기인 숙달목표나 학업효능감에서는 학년이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나 수행목표에서 고등학교 2학년이 높은 이유와 성취가치에서 중학교 2학년이 더 높은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즉,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학입시 제도와 높

은 교육적 성취를 추구하는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숙달목표나 성취가치와 같은 내재적 동기보다는 수행목표와 같은 외재적 동기가 더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성취압력과 자기불일치가 성과 학년에 따라 다르게 학업적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성취압력이 학업적 성취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학업적 성취동기의 향상을 위해서는 적절한 부모의 성취압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성취압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선행연구에서 성취압력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보여진다. 이는 부모의 성취압력을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성취압력이 적절한 수준을 넘어 서게 되면 오히려 성취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부모는 수행목표와 같은 결과를 중심으로 하는 외재적 동기보다는 학습을 자아실현의 기회로 여기는 내재적 동기인 숙달목표, 학습을 가치있게 여기는 성취가치, 학업수행능력에 대한 신념을 나타내는 학업효능감의 향상을 위해 청소년기 자녀의 성취행동에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지지와 격려 차원의 성취압력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기 부모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녀 교육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녀들의 성취동기를 향상시켜 줄 수 있도록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녀청소년의 자기불일치가 학업적 성취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실제 자기 개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자기불일치를 줄일 수 있도록 학교현장이나 가정에서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자기불일치를 줄임으로써 실제 자기 개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여 자기불일치의 감소뿐만 아니라 자기개념의 긍정적인 변화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및 교육현장에서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성취동기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청소년과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 및 학교현장에 있는 교사들에게 학업적 성취동기의 증진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대처할 수 있는 교육적 함의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서울 및 경기지역에 있는 인문계 중·고등학생들로 국한되어 있어서 전체 청소년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결과와 안정성을 위해 인문계 중·고등학교 이외의 실업계 중·고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폭넓은 표집을 하거나 서울 및 경기지역 이외에 다양한

지역특성을 가진 연구대상을 선정하여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는데 고등학생에 비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기불일치를 측정할 연구는 소수이다. 따라서 보다 많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아버지의 성취압력과 어머니의 성취압력이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에 정서적 발달과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은 살펴보기 못했다. 후속연구에서는 성취동기와 다양한 발달결과 변인을 투입하여 부모의 성취압력이 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각각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지금까지 자기불일치 이론에 대해서 상반된 결과가 존재하고 있고 또한 자기불일치와 성취동기에 대한 연구는 거의 소수이다. 자기불일치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부정적 정서인 우울과 불안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자기불일치 이론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자기불일치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연구대상에 포함하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성취동기에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많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간의 성취동기에 대한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셋째, 아버지의 역할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 시대에 아직까지 아버지의 성취압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아버지의 영향력이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 아버지 변인을 포함시켜 그에 따른 영향력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참고문헌

강영철(2003).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업자아 및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혜선(1988).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딸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구현경(2008). 어머니의 성취압력 및 정서적 지지가 남녀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구혜영(2006).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화합도가 성취동기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형자(1993). 학습동기, 귀인성향, 학습시간과 학업성적과의 관계 및 이 변인들이 중속성취기대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기철현(2002).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동기와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옥(1992). 부모의 성취압력이 학생의 정의적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기정(1984). 학업성취와 지각된 양육태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도윤(2009). 화교청소년과 한국청소년의 학업적 성취동기에 관한 비교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보경(2001). 이혼가정의 학교-가정관계, 아동의 성취동기 및 학교생활적응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종서(1983). 비행학생과 학습우수학생의 성격분석: 서울시내 남자고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향림(2001).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건강문제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희수(2003). 가정의 과정환경과 학업동기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문은식(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관련변인의 탐색적 고찰. **교육개발논집**, 23(1), 153-167.
 민숙정(1990).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청소년기의 성취동기.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석철(2007). 부모의 교육참여와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업동기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성취에 대한 중단연구: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0(3), 37-59.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2002). IMF 이후 한국 학생과 성인의 성공에 대한 인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1), 103-139.
 박현정, 이정남(2005).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양육행동 및 아동의 성취동기가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4(4), 547-555.
 박현주(2003). 고등학생의 자기불일치와 우울, 불안 및 자기효능감간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현희(2006). 자기불일치 및 자기통제력이 대학생의 시험불안

- 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수균(1996). 자기집중적 주의, 실제 자기개념 및 자기안내자 선호성을 고려한 자기불일치와 우울 및 불안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소연희(2008). 학교 급별에 따른 지각된 사회적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성취동기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경로모형을 중심으로. **아동교육**, 17(2), 49-64.
- 손낙주(1997). 가정환경, 아동의 자아평가와 학습된 무력감간의 인과관계.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민희, 강문희(2005). 소년원 수용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자기불일치 및 우울 수준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2(1), 183-205.
- 신혜린(2002). 성취관련 자기불일치와 자의식에 따른 성적하락과 시험불안의 관계모형 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연숙(2006). 학교생활 부적응 관련 제 변인 연구. 탐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영숙(2001). 학업성취동기 훈련프로그램이 중학생의 학습태도, 학업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남(2006). 개인변인과 부모변인이 아동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161-174.
- 이수진, 조상철, 허일범(2008).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9(3), 289-301.
- 이은진(2007).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아동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은미(1998). 학업동기 및 부모행동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일모, 조용래, 김학렬(1995). 자기불일치와 정서적 불편감의 관계-자기불일치 이론의 경험적 검증. **신경정신의학**, 34(5), 1416-1431.
- 임종석(2000). 부모의 학업압력과 아동의 성취불안 및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진, 김은정(2008). 청소년의 실제-이상자기불일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과 반추적 반응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2008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578-579.
- 정갑순(2002). 부모-자녀관계와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업성취간의 관계에 대한 종단적 분석.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계숙(1992). 도시와 농촌 초등학교 아동의 성취동기 발달. **유아교육논총**, 2, 49-63.
- 정지선(2007).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성취압력과 자기효능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중(1986). 자아불일치와 상태-특성불안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조용래, 김선태, 표경식(1996). 신경증적 증상 환자들의 자기불일치와 정신병리의 관계: 자기불일치 이론의 임상적 적용가능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35(3), 664-677.
- 최정원(1996). 실제자기 수준, 이상적 자기 수준 및 자기불일치 수준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은자(2001). 어머니 성취압력과 학원·학습지 이용이 유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혜연(2006). 교사효능감 및 부모자녀관계변인과 고등학생의 학습동기, 학습전략,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ker, D. P., & Entwisle, D. R.(1987). The influence of mothers on the academic expectations of young children: A longitudinal study of how gender differences arise. *Social Forces*, 65, 670-694.
-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etz, N. E., & Fitzgerald, L. F.(1987). *The career psychology of women*. Orlando, FL: Academic Press.
- Erikson, E. H.(1963). *Childhood and society*.(2nd ed.). New York: Norton.
- Field, W. F.(1951). The effects on thematic apperception of certain experimentally aroused needs. Unpublished PH. D. thesis Univ. of Maryland.
- Harter, S.(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elf-system. In P. H. Musse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 275-385. New York: Wiley.
- Harter, S.(1990). Developmental Difference in the Nature of Self- Representations : Implication for the Understanding, Assessment and Treatment of Maladaptive Behavior.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2), 113-142.
- Higgins, E. T.(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 94(3), 319-340.
- Higgins, E. T., Bond, R. N., Klein, R., & Strauman, T. J.(1986). Self discrepancies and emotional vulnerability. How magnitude, accessibility, and type of discrepancy influenc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1), 5-15.
- McClelland, D. C.(1961). *The achieving society*. Prinseton, NJ: D. Van Nostrand.
- Osgood, C. E., Suci, G. J., & Tannenbuam, P. H.(1957). *The measurement of meaning*. Urbana, IL: The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Rosenberg, M.(1986). Self-concept from middle childhood through adolescence. In J. Suls & A. G. Greenwald (Ed.),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the self*, 3, 182-205, Hillsdale, NJ: Erlbaum.
- Shaffer, D. R.(2000). *Development Psychology(5th)*. California, CA: Brooks/Cole. **발달심리학**. 송길연, 김수정, 이지연, 양돈규(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1999년 원저발간)
- Steil, J.(1997). *Marital equality: Its relationship to the well-being of husbands and wives*. Thousand Oaks, CA: Sage.
- Stein, A. H., & Bailey, M. M.(1973). The socialization of achievement orientation in females. *Psychological Bulletin*, 80(5), 345-366.
- Weiner, B.(1985). An attributional theory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emotion. *Psychological review*, 92, 548-573.

접 수 일 : 2010년 11월 8일

심사시작일 : 2010년 12월 7일

게재확정일 : 2011년 1월 26일